

2017.6.23



▲ 통신서비스  
Analyst 정지수  
02. 6098-6681  
jisoo.jeong@meritz.co.kr

## Overweight

# 통신서비스

##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

- ✓ 국정기획위, 기본료 폐지, 선택약정할인을 상향, 보편요금제 도입 그리고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
- ✓ 이번 통신비 대책 절감은 기존에 추진됐던 기본료 일괄 폐지에 비해 완화된 기초
- ✓ 그럼에도 기회손실비용은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이며, 보편 요금제 도입 효과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안감은 여전
- ✓ 과거 사례와 같이 다양한 대응방안을 통한 수익성 보전이 중요할 전망

### 국정기획위,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

국정기획위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. 내용에는 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, ② 선택약정할인율 20% → 25% 상향, ③ 보편 요금제 도입, 그리고 ④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이 포함됐다. 저소득층(사회 취약계층)을 위한 기본료 폐지와 합리적 소비자들을 위한 보편 요금제 도입,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을 위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한 정책 발표였다.

### 완화된 기초에도 불안감은 여전

이번에 발표된 통신비 절감 대책은 기존에 추진됐던 11,000원 기본료 일괄 폐지와 비교해서 상당히 완화된 기초라고 볼 수 있다. 또한, 대책 발표 이전에 도입 가능한 사안들이 미리 발표돼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도 최소화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.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추가 5% 상향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며, 보편 요금제 도입도 아직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
### 예고된 통신비 인하, 대응방안이 중요

당장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달리 보편 요금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한이 소요될 전망이다. 1GB 데이터를 제공받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무선수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작고,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업셀링 유도도 예상되는 효과를 축소할 수 있다. 또한, 과거 사례처럼 마케팅 비용 절감, 데이터 제공 억제, 요금제 개편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통한 수익성 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.

**표1 문재인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효과**

대책	절감효과
어르신·저소득층(584만명, 전국민의 11.3%)에게 기본료 폐지 수준의 감면혜택 제공 (329만명에게 최대 5,173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(2만원 이하 비용)은 <b>월 11,000원 감면으로 요금이 1만원 이하로 절감</b> *신청률 고려시 어르신 193만명 혜택 예상</li> <li>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<b>월 11,000원을 추가 감면 받아 월 26,000원까지 기본 감면</b> *신청률 고려시 저소득층 136만명 혜택 예상</li> </ul>
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% → 25%로 상향 (1,900만명에게 최대 1조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용자들이 가입시 선택하는 평균요금수준(4만원)을 적용하면 <b>월 10,000원 할인</b> -기존 20% 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<b>2,000원 추가 할인</b></li> <li>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월 700MB~1.1GB를 무료 이용시 <b>1인당 평균 6,000원 절감</b>(637만명 혜택)</li> <li>학교에서 월 280~560MB를 무료 이용시 <b>평균 2,800원 절감</b>(학생·교직원 631만명 혜택)</li> </ul>
공공 WiFi 확대 구축 (1.268만명에게 4,800억~8,50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의 음성·데이터(200분, 1GB)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가입자는 <b>월 11,000원 이상 절감</b></li> <li>3만원대 이상 요금제 이용자는 연쇄적인 제공량 확대로 <b>월 11,000원 이상 혜택</b></li> </ul>
보편 요금제를 도입하여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 (2,570만명에게 최대 2.2조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의 음성·데이터(200분, 1GB)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가입자는 <b>월 11,000원 이상 절감</b></li> <li>3만원대 이상 요금제 이용자는 연쇄적인 제공량 확대로 <b>월 11,000원 이상 혜택</b></li> </ul>
<b>총계</b>	<b>최대 4조 6,273억원</b>

자료: 언론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**Compliance Notice**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6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7년 6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6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정지수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**투자등급 관련사항** (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)

기업	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
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	<p>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+20% 이상</p> <p>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+5% 이상 ~ +20% 미만</p> <p>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-20% 이상 ~ +5% 미만</p> <p>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-20% 미만</p>
<b>산업</b>	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
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	<p>Overweight (비중확대)</p> <p>Neutral (중립)</p> <p>Underweight (비중축소)</p>

**투자의견 비율**

투자의견	비율
매수	92.5%
중립	7.5%
매도	0%

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